

동곡농협의 토지 매입 “업무상 배임” 특별 감사 개발제한구역 “폐기물매립” 은폐 의혹 진실공방

동곡 농협은 광산구 북동동 123-1번지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매매계약 체결 시 사전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에 승인을 받은 사실은 절차상의 위반이라는 2025. 5월부터 실시한 농협 특별감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은 1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매입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15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은 적절한 가격 산정과 계약 체결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했으며, 감정평가서에는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중요한 문구가 누락되어 있었고, 광산구청이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어렵다는 설명을 농협에 전달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매입을 강행했다는 특별감사의 지적으로 의도적인 은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곡농협이 토지 용도변경을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항의

이후인 2024년 8월에야 광산구청에 로컬푸드 관련 요청 공문이 접수되었고, 같은 달에 로컬푸드 사업장 불가 입장이 회신된 점을 근거로 로컬푸드 사업장 노력이 허위성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동곡 농협은 조합원들의 반발과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입 당시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해명했으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가계약’이라는 문구도 없어 농협 측 해명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여 사전 조사가 부족했던 졸속 계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동곡농협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불가능한 농지를 부적절한 내부 승인 절차로 고가에 매입하고, 폐기물 매립 사실과 용도변경 불가 사실을 은폐했으며, 즉, 실제로는 용도변경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없었다며, 이로 인해 업무상 배임

의혹이 매우 크다는 특별감사의 지적이다.

해당 토지는 이미 건설폐기물이 매립되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고, 이를 알고도 농협이 시범포 농지로 버 재배를 허위 신고하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들로 인해, 광산구청은 현장조사에서 육안 확인만으로 폐기물이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는 절차적 문제와 함께 의문을 남기고 있는가 하면, 조합장의 위법적 운영과 경영 악화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특별감사를 함께 진행한 모 감사가 조합장의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감사보고서를 문제 삼아 자신의 이름 삭제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추석 명절 관례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상품권도 이사회 승인(기, 이사회 결정은 10만 원)도 없이 조합 임의로 50% 삭감하여 지급했다고 한다.

동곡농협은 2025년 상반기 주변 농협 중 유일하게 적자 실적을 낸 동곡 농협의



조합원 들은 최근 제기된 의혹, 및 추석 지급액과 관련하여 감사와 조합장 간의 결타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한편, 동곡농협은 북동동123-1번지 비영리토지 매입을 하기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을 받고자, 비 시범포를 한다고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를 제출 했다는 의

혹들이 있어, 조합원들의 불신이 점점 커진 상황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따라서 동곡농협의 이번 토지 매입과 관련한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의혹은 허위 농업경영계획서에 승인을 받고자, 비 시범포를 한다고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를 제출 했다는 의

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될 수 있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농 의사가 없으면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앞으로 행정적·법적 조치 및 조합 내외부의 강도 높은 감시와 개혁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기동취재부

유탑그룹 계열사 3곳, 회생 신청... 해상풍력사업 ‘빨간불’

광주·전남 중견 건설사로서 굴적한 관급 공사를 도맡았던 유탑그룹 내 계열사 3곳이 일제히 법원 회생(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일 회생 신청을 한 유탑그룹 계열사 3곳(유탑건설·유탑엔지니어링·유탑디앤씨)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내리면 회사 자산 동결 절차가 시작된다. 법원 허가 없이는 회사 채권 회수와 자체적인 자산 처분을 할 수 없는 조처다. 현재 유탑엔지니어링에 대한 채권자는 지자체, 법원을 포함해 103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경영진 등을 상대로 심문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계열사 3곳 모두 다음 심문 기일은 20일이다.

주력 계열사인 유탑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97위이다. 국내 대기업,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주도하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지역 중견건설사로서 이례적으로 진출했다.

광주·전남 중견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순위 97위 서울회생법원 포괄적 금지 명령 공고... 20일 심문 시·도청사, 광주월드컵경기장 설계·감리 도맡기도 2조원대 신안 해상풍력 발전 사업 전망도 불투명

유탑건설은 지난해 연말 신안군 임자면 해상에 설비용량 323MW, 총 사업비 2조원 규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9년 말 착공, 2031년 준공 예정, 이듬해 상업 운전 예정이었으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게 됐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탑엔지니어링은 광주·전남도 청사, 광주월드컵경기장, 광주기아체플런스필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지역 내 주요 대형 건축물의 설계·감리를 맡기도 했다. 부동산 개발·임대업체인 유탑디앤씨의

경우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오피스텔 등 위탁 관리 과정에서 자금난을 이유로 분양자들에게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력 계열사인 유탑건설이 영업손실을 기록한 2023년부터 그룹 내 자금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있었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호텔 레지던스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했으나 최근 주택시장 미분양 물량까지 쌓이며 한계에 봉착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가뜰이나 침체되는 지역 건설·부동산 업계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광훈 기자

‘5개월째 휴업’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파업 여부 주목

사측과 임금협상이 결렬된 금호타이어 노조가 쟁의행위 돌입을 결의한 가운데 대형 화재로 휴업 중인 광주공장의 쟁의행위 수위와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조합원 3498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3.6%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은 3261명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이날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파업 여부와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배수진을 쳤지만, 노사는 이날 교섭을 재개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노조는 올해 단체 교섭에서 임금인상과 함께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임금협상 결렬’ 노조 파업 등 쟁의행위 결의

노사 교섭 재개했지만... “조속한 합의, 생산재개” 목소리

에 따른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광주공장 화재 복구, 합평 신공장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 등 현안을 들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날 노사가 머리를 맞대면서 돌과 구를 마련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협상이 공전할 경우 노조의 쟁의행위 현실화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형화재로 5개월째 가동이 중단된 광주공장의 경우 파업은 노조의 협상카드나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호타이어 팽택·곡성공장은 몰라도 화재로 인해 휴업 중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파업은 ‘여불설성’이라는 것이다.

특히 노조가 파업을 결정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70% 휴업 수

당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노조의 운신의 폭은 넓지 않다.

현재 화재로 인해 광주공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된 생산직 직원은 1800여명으로 곡성 공장으로 파견된 인원을 뺀 1600여명은 70%의 휴업 수당을 받으며 일을 쉬고 있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대형 화재로 5개월째 공장 가동이 중단된 광주공장은 근로자들이 휴업하고 있는 상황인데 파업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노사는 조속히 임금협상을 마무리하고 일정대로 이달내 생산재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것이 합평 신공장 건설을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그나마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원 기자

Self 참숯구이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조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